

도내 캐릭터들 '우리동네 캐림픽' 도전장

정읍시 '단이와 풍이', 우승 도전

정읍시를 대표하는 나무인 단풍나무의 잎을 캐릭터화한 '단이와 풍이'가 '우리 동네 캐림픽'에 도전장을 던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 동네 캐림픽'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표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캐릭터를 뽑는 캐릭터 올림피아드다.

2001년 처음 개발된 '단이와 풍이'는 특유의 발랄함과 친근함을 무기로 삼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한 캐릭터로 다가가고 있다.

지역 특산품과 맛집, 관광 명소 홍보는 물론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대회 예선전은 온라인투표(80)와 전문



가심사(20)로 진행되며, 총 32개 캐릭터(지역 부문 16개, 공공부문 16개)가 본선에 진출한다. 온라인투표는 우리 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며, 본인 인증을 거쳐 1인 1표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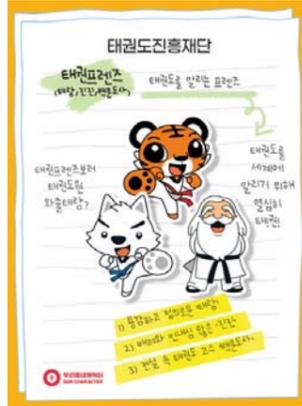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집중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캐릭터 전문가 특강 특전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 출전하는 '단이와 풍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랑·진진·백운도사' 도 출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제3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공모전 - 공공 부문'에 태권도원 캐릭터인 '태랑, 진진, 백운도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캐릭터 공모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캐릭터(타스코트)가 참가해 공공 부문과 지역 부문으로 나눠 우리 동네 최고의 캐릭터 스타를 선별하는 대회이다. 예선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우리동네 캐릭터 홈페이지(https://ourcharacter.org/)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기간 중 1인 1표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예선을 통과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본선은 9월 21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태랑, 진진, 백운도사 등 태권도원 캐릭터는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태랑, 진진, 백운도사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혁명 신국역총서'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1종의 고문서를 추출해 번역하고, 이를 수록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2'를 발간했다.

신국역총서 12권에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수령이 하급기관에 하달한 문서, 향촌통제 강화를 위해 배포하거나 작성한 문서, 각 군현의 농민봉기 과정을 기록한 문서' 등이 수록돼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향촌사회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발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연구가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www.e-donghak.or.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지난 4일 순창 적성초등학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쳤다.

전북대, 순창 적성초서 '한국무용 수업' 교육기부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박병기)는 지난 4일 순창 적성초등학교(교장 최명신)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쳤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예체능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궁중무용인 향발무에 관한 내용으로 꾸려졌다.

센터는 낯설게 만들어진 악기 향발을 손가락에 맨 후 장단에 맞춰 추는 춤을 학생들에게 선보였다.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를 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오는 12월까지 10차례

수업을 통해 한국무용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유수정 한국국악협회 장성지부장은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기부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는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부를 신청한 한희정 교사는 "분야별 전문인과 교사가 교육기부를 통한 협력수업으로 더 알차고 전문적인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기회를 통해 소인수 학교의 체육수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

현대사회의 문화적 실천 · 상상의 유교전통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4집 발간 기획 · 일반논문 등 총 6편 게재... 5집 게재 원고 모집 중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4집을 발간했다.

제4집에서는 '현대사회 문화적 실천과 상상의 유교전통'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2편과 일반논문 4편 총 6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 중어중문학과 저우잔안 교수의 <20세기 중국 역사 속의 '혁명 유학' - 송스리(熊士力)를 중심으로>와 서울시립대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과장인 객원교수의 <이문열의 '시인'에 나타난 유교의식과 시인의 저항>이 각각 선정됐다.

일반논문으로는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한의승 HK교수의 <문집 편찬을 통해 본 기록의 역할과 한 인간의

초상-동계 권달수의 '동계선생문집'을 중심으로>와 안양대 신학연구소 HK+사업단 김보름 HK 연구교수의 <서학서 번역의 현황과 과제? 주제군집>을 중심으로>와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이훈 연구교수의 <숙종대 임술통신사(1682) 파견과 적례외교의 정착>이, 마지막으로 일본 시코쿠학원대 김태훈 준교수의 <'조선총독부관보'로 보는 일본계 종교 유입의 전체도>가 게재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공존의 인간학' 제5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전주대 관계자는 "공존의 인간학,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 연구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한다"며, "탈유교 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투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